

재외동포의



2013 7 월호

특집 : 4~11

“모국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열자”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열려 ‘차세대 육성’ 등 강조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과학과 디자인의 만남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은 조선 시대에 지어진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일제기에 심각하게 훼손됐고 한국전쟁 때 큰 타격을 받아서 1975년 이후에 복원공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유네스코 심사관은 복제품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했지만 복원의 근거로 제시한 '화성성역의궤'를 보고 그 꼼꼼한 공사 기록서를 근거로 복원했다는 걸 알고 등재를 허락했다고 한다.

수원 화성은 한국 건축사상 디자인적으로 볼 때 돌연변이라 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히 뛰어난 건축물이다. 특히 '방허수류정(보물 1709호)'이라 불리는 동북각루는 성 밖에 있는 연못과 같이 보면 군사 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인다.

정조의 지시를 받은 정약용은 2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수원성에는 당시 처음 선보인 거중기 등 신기술이 적용됐다.

2	한국의 열	과학과 디자인의 만남 수원 화성
3	목차	
4	특집	“모국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열자”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열려 ‘차세대 육성’ 등 강조
12	기획	‘2013 세계한상대회’ 10월 광주서 열린다 “창조경제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 40여국서 3천명 참가할듯
14	OKF 뉴스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7월 31일까지 접수 외
16	한민족공감	차대통령 訪中, 새로운 20년 협력 다져
17	글로벌코리아	美 명문 프린스턴대에 한인 부총장 개교 267년 만에 첫 아시아인 데이비드 리(이상윤) 교수
18	지구촌 통신원	캐나다 ‘한국의 해’ 포스터에 실린 한인들 연아 마틴 · 이미정 · 강철용 · 정환석 씨
20	통신원 리포트	식도락의 천국 홍콩, 요즘 대세는 ‘한식’ 권윤희 위클리홍콩 발행인 / 재외동포의창 홍콩 통신원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23	동포문학	노후설계 전찬영(캐나다) 2012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가작
24	나의 살던 고향	하늘 · 산 · 물... 세상 시름을 잊어라 문경
26	재단공지	



표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란 주제로 열렸다.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세계한인회장대회는 73개국에서 380여 명이 참석해 한인회 간의 교류와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코리아’ 구현에 한인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



발행인: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8일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마인드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세계 각국의 동포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국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열자”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열려 ‘차세대 육성’ 등 강조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란 주제로 열렸다.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세계한인회장대회는 73개국에서 380여 명이 참석해 한인회 간의 교류와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코리아’ 구현에 한인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모국과 세계 한인이 함께 발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오공태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한인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고 밝혔다.

전 세계 한인 대표들이 모여 한인회 현안을 비롯해 국내 청년 해외 취업 지원 방안, 차세대 한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18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쉐라톤위커피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여야 국회의원, 조태열 외교부 차관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앞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마인드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세계 각국의 동포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재외동포 사회가 고국 발전에 이바지한 역할을 치하한 뒤 “동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국 사랑이 대한민국

을 국제사회에서 도약시키는 데 큰 발판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며 전 세계의 우리 동포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할 때 국민행복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동포 여러분의 오랜 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인의 리더인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민족공동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라며 “모국과 세계 한인이 함께 발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종범 재유림한인총연합회장과 함께 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오공태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한인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면서 “재외동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

망하며 새 정부가 해외에서 자라는 차세대들의 한글 교육, 한국 문화와 역사 교육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개회사, 재외동포재단 홍보 영상 상영, 환영사,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공태·박종범 공동의장은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천500만 원의 장학기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재외동포 활용 정책 필요’ 입모아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각국 한인회장들은 18일 정부에 “높아진 재외동포의 위상을 반영해 정책·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인회장들은 개막식에 앞서 대회장인 서울 광진구 웨라톤위키 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져 고국과의 교류·유대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며 심도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 공동의장인 박종범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수차례 ‘재외동포교류센터’ 설립,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청’ 승격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몇몇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재외동포청’이 어렵다면 기술적으로 ‘재외국민청’이라고 칭해도 좋으니 동포정책을 깊이 있게 펼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제현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독일 한인사회는 ‘이민의 역사’라기보다는 ‘파견의 역사’라며 “이제 70~80대가 된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고국 방문·귀국 시 머물 곳이 없는 동포들을 위한 교류센터 건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한인회장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유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 한국 기업 300여 개가 있지만 정작 훌륭한 능력을 갖춘 2세들을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등 활용하지 못해 이들이 외국기업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며 “기업과 재외동포가 함께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전 세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한인 인재들이 있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경제에 융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외선거제도·재외국민보호법안 논의

세계한인회장대회 이틀째인 19일 서울 광진구 웨라톤위키힐 호텔에 모인 한인회장들은 재외선거제도·재외국민보호법안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인회장들은 ‘나라 사랑 정신 함양과 호국 보훈’을 주제로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특강으로 오전 일정을 시작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민주당 김성근 의원이 발표자로 나선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원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참여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한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재외유권자가 모국의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재외동포를 위한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공직선거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공

1	2	4
	3	
5		
6	7	

- 1 강창희 국회의장은 만찬을 열어 한인회장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2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회장들은 “높아진 재외동포의 위상을 반영해 정책·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 좌측부터 유제현 재독총연 회장,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 회장, 이백수 브라질한인총연 회장.
- 3 오공태·박종범 공동의장은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천500만 원의 장학기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했다.
- 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사를 통해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한 유형별 행동 지침과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올해 중 모바일 원스톱 영사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 5 한인회장들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민주당 김성근 의원이 발표자로 나선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 참석해 양당의 동포 정책에 귀를 기울였다.
- 6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7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은 환영만찬을 열고 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을 격려했다.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모인 주요 사항을 전 세계 한인회와 공유하기 위해 한인회장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대륙별 한인 총연합회의 각종 활동과 현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은 한인회 간의 교류와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 앞장섰다. 사진은 만찬에서 건배하는 한인회장들.



지역별 현안토론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은 지역사회의 현안 및 운영사례 등을 통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동 발전을 위해 한인회장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각 정당이 재외국민보호법 등 동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동포사회 권익 신장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인의 가치' 특강에 이어 유럽, 아프리카·중동, 북

미, 일본, 중남미, 러시아·CIS, 중국, 아시아, 대양주 등 9개 지역별로 국내 청년 해외 진출 및 취업 지원 방안과 차세대 한인회 활동 참여 유도 방안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외교부, '모바일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외교부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하고 모바일 영사서비스를 강화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사를 통해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한 유형별 행동 지침과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올해 중 모바일 원스톱 영사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해외안전여행 어플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열람 수준을 넘어 상황별 대처 요령과 여행경보 전파 등의 기능을 강화, 한 번에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또 영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지 영사와 주재국 치안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영사협력원 증원 ▲통역 연계서비스 실시 ▲해외법률자문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확대 추진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안전행정부와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적 회복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창조경제 동참' 결의하며 폐막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인회장들은 서울 광진구 웨라톤위커피호텔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취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등 4개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수 재외동포 인재들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 재외동포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동포 육성과 모국 방문 재외동포 활동의 중심점이 될 '재외동포교류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

도 담겼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식 환송사에서 “대회 기간 내내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한인회장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현지 응원군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대회 공동의장인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한인회장들은 폐막에 앞서 내년 대회 공동의장으로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임도재 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선출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장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결정했다. **장**

5개 우수한인회 사례 발표 “주류사회와 협력 중요”

“이민사회의 고질적 산물인 단체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연 2회 한인단체 합동 모임을 열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380여 명의 한인회 대표들은 20일 오후 서울 웨라톤 워커히 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우수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시간에 이윤구 미국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선 한인회는 캐나다 토론토, 페루, 폴란드, 미국 새크라멘토, 쿠웨이트 등 5개 지역이다.

이 회장은 “새크라멘토에는 15개가 넘는 한인 단체와 4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함께 단일 행사 달력을 만들어 행사 중복과 경쟁을 피하고 서로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한인회 사무실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의 회의 또는 교육 장소로 무료 개방해 영어교실, 시민권 강좌, 위생교육, 건강검진,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주지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한인 사회 복지를 위해 쓰는 방안도 소개됐다.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은 “2011년부터 매년 한인회의 프로그램 개발과 한인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한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건강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한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강좌를 운영해 주류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쿠웨이트한인회는 지난 5월 18일 한인 청소년과 현지인 자녀로 구성된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동 콘서트를 열어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심현섭 한인회장은 “음악을 통한 다문화 간의 교류와 이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한인회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해 한인회 운영의 노하우를 나누고 우수 한인회를 격려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권영관 폴란드 한인회장, 심현섭 쿠웨이트 한인회장, 이삼하 페루 한인회장,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이윤구 새크라멘토 한인회장.

증진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 지난 3월부터 주 3회 레슨과 정규 연습을 해왔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청소년의 주류사회 공헌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한인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가 앞장서서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권영관 폴란드 한인회장은 “올해는 박물관과 지방 문화재 탐방을 계획 중”이라며 “해외에서 한류를 알리기 전에 우선 사는 나라를 깊이 이해해야 진정한 우정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삼하 페루 한인회장은 “17년째 ‘한국-페루 우정단체’를 운영하면서 의료 봉사 등에 나서 6·25전쟁 때 구호기금을 보내준 페루에 보은하고 있다”며 “봉사는 한두 해 하다 말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파독 광부들의 귀국 염원 풀어줘야” 유제현 재독총연 회장



“1963년 광부로 독일에 온 한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조국을 향했던 이들의 헌신을 이제는 정부가 보듬어 안아줬으면 합니다.”

1975년 이후 유학생 출신으로 제32대 재독한인총연합회장에 오른 유제현(59·이하 재독총연)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파독 산업전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유 회장은 인터뷰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주를 이루는 독일의 한인들은 거주국에 비해 잘살지 못하고,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아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이 조국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귀국하기 전, 또는 귀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한인들을 위해 현지에 양로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며 “양로원을 세우는 일에 공감하면서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관심이 있는 독지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현재 독일 내 38개 지역한인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뉴질랜드 최초 한인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윤교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지난 5월 임기 2년의 한인회장에 연임된 윤교진(4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이 6월 25일부터 라디오 방송(FM 96.9MHz) 개국 소식을 국내에 알렸다. 방송 개국은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이 촉발시켰다.

윤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었다”며 “앞으로 방송에서는 각종 커뮤니티 뉴

스, 지진 복구 현황,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방송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늘려 주 3회 방송할 계획입니다. 방송 기술과 아나운서 등의 분야에 한인 차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는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기관인 ‘헬프라인’에 한인 16명이 상담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 산하의 지진복구단체인 ‘세라(SERA)’에 영어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한인회가 통역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기회의 땅... 한인 진출 늘어나길” 정우상 라오스 한인회장



지난달 탈북자 복송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정우상(48) 라오스 한인회장은 “당시 대사관이 탈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라오스 사회와 대사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사고가 나면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국인 보호가 철저한 라오스 특성상

대사관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사관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설명이다.

라오스에는 약 1천700명의 한인이 있다. 무역업 종사자나 국내 공·사기업 주재원, 봉사단원, 선교사들이 주를 이룬다. 정회장은 ‘제이페밀리모터’라는 자동차 판매·정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오스는 아직 ‘기회의 땅’ 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서류작업이 지루할 만큼 길고 제한사항도 많은 반면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이 상권 장악... 한인에 대한 호감 늘어” 조승미 이란 한인회장



1997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이란 한인회를 이끄는 조승미(65·여) 회장은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18일 울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 대 이란전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돌렸다.

경제 제재를 풀려면 미국과 핵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데, 이란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미국과의 대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경제제재 틈을 타고 유일하게 중국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품이 판을 치고, 건설 현장에는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으며 거리에는 중국인이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류는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사이의 ‘강남 스타일’ ‘젠틀맨’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 일본인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한국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근면, 성실,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어요.”

“6·25 구호 보은 차원에서 NGO 만들어 의료 봉사” 이삼하 페루 한인회장



“한국-페루 우정단체(HAPECO)라는 NGO를 만들어 페루의 빈민계층을 대상으로 17년째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페루는 6·25전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구호금을 보내와 도와준 친구의 나라여서 봉사에 더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삼하(55·여) 페루 한인회장은 “의료 봉사와 더불어 가난 퇴치를 위한 직업교육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도 한다”며 “페루 현지인뿐 아니라 몸이 아파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병원을 못 가

는 한인 어르신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HAPECO는 1996년에 나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 의사와 의료봉사를 다니다가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인근의 히카마리카 지역에 병원도 세웠고, 최근에는 미혼모 직업교육과 탁아소도 운영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한국인만 보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그는 “이민 역사가 오래된 중국계와 일본계는 현지화돼 모국을 잊고 사는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인회관을 지어서 한국학교와 한인회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숫자 줄어도 대기업 진출로 젊은 층 늘어 활기” 조홍선 나이지리아 한인회장



조홍선(52) 나이지리아 한인회장은 머나먼 아프리카에 사는 고층을 묻자 “한반도의 4배가 넘는 땅에 외딴 섬에 있는 단기 노동자 300명까지 계산해도 한인이 약 600명밖에 안돼 ‘한국 사람처럼’ 살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한인 대부분은 구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라고스에 살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수도가 아부자로 바뀌면서 대사관도 떠났다.

이쯤이면 한인회 활동이 침체할 법도 하지만 최근 나이지리아를 찾은 청년들 덕에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건설,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이지리아에 와 있는 20~30대 한인 청년도 많아졌다.

조 회장은 “한인 청년들이 한글학교 선생님을 자처하고 체육대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다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재능이 많아 봉사활동 등도 아주 다채로워지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참]**

‘2013 세계한상대회’ 10월 광주서 열린다

“창조경제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 40여 국서 3천명 참가할듯



전 세계 한인경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한인경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포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올해 대회는 세계 40여 개국 약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전략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멘토링세션,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프로그램과 영비즈&한상 네트워크를 비롯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해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등 한상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동 주관하는 광주시의 특성을 실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식품과 외식 산업을 비롯해 첨단 산업 등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와 광주 지역과 연계된 전략세미나 등을 통해서 개최자인 부산의 경제발전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전시회는 뷰티, 섬유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기계·자재, 의료 등 품목별로 배치되며, 품목 내에 우수아이디어상품관, 첨단IT관, 우수창업기업관, 한상단체관 등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기업전시회 부대행사로는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 진출 전략세미나 등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호남에서 열리는 첫 대회인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 등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재단과의 지역기업인, 재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한상대회가 어떤 대회보다도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광주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상대회 방안으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등 지역축제와의 연계, 남도민요제 및 문화예술 갈라쇼, 대중음악제, 코리아안디아스포라 사진전, 전세계 코리아타운생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더불어 한상 리딩CEO를 초청해 호남권 대학에서 강연 및 네트워크를 꺾어 글로벌 지역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12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광주와 전남·북을 잇는 광역권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남권의 주요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개최 전략도 밝혔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에 총 6회에 걸쳐 갖게 되는 오·만찬 행사도 남도 대표 특산물과 음식재료로 구성된 전국 최고의 한식 메뉴를 개발해 한식코스 시리즈 형식으로 내놓음으로써 대회 참가한 상들에게 ‘남도의 맛’을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한상기업과 호남권 중소기업 간 사전매칭, 맞춤형 사전 1대1 상담, 대표한상과 지역CEO 멘토 결연 등의 방안이 ‘특색 있는 한상대회’와 ‘대회 운용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

“한상의 성공 사례는 ‘창조경제’의 표본”

“47개국에서 1천 명이 넘는 한상(韓商)이 고국과 동반성장을 위해 참여하는 광주 세계한상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회장인 홍명기(79) 미국 듀라코트 회장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LA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상대회 참석을 건의한 데 이어 재차 요청했다.

지금까지 11차례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동안 행사에 참석해 한상들을 격려한 대통령은 2007년 부산 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광주 세계한상대회 설명회 참석차 방한한 홍 회장은 “한상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며 “국내 기업인을 포함해 3천여 명이 모이는 올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해주면 자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한인 경제인단체들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는 지금까지 서울·부산·제주·경기·대구 등지에서 열렸다.

홍 대회장은 “올해 광주 대회는 청정식품 관련 테마관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게 꾸밀 예정”이라며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대회로 이끌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이어 올해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성공한 한상과 영비즈니스리더 간의 멘토링 세션, 식품·섬유·패션과 첨단 트렌드산업 등 업종별·지역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돼 있다.

대회 참가자와 광주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해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남도 민요를 비롯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갈라쇼’를 진행해 예향(藝鄕) 광주의 이미지를 한상을 통해 세계에 알릴 겁니다. 대회 기간에 열리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와도 연계해 대회장에 ‘김치 특별 전시관’도 운영합니다.”



홍명기 2013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한상 네트워크야말로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이라는 논리도 펼친다. 그는 “타국에서 차별과 역경을 딛고 성장한 한상의 성공 사례는 ‘창조경제’의 표본과 같다”면서 “힘든 시기일수록 남과 다른 ‘차별화’로 재창조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다” 조언했다.

홍 회장은 1985년 51세의 늦은 나이에 창업해 건축용 철근 내구성 강화도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연매출 2억 달러를 올리는 듀라코트를 일궜다.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차별을 받자 자존심이 상해 사표를 내고 나와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 세상에 선보일겠다는 생각으로 신기술 개발에 매달렸다”며 “당시 하루 3시간 컨테이너에서 자면서 퇴근한 연구실을 빌려 밤에 실험을 거듭했다”고 회상했다.

“성공한 한상은 모두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와 같아요. 이방인이라서 겪는 ‘유리 천장’과 맞서며 남과 다른 차별화로 고민했고 남달리 노력했기에 오늘날의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젊은 후배에게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꾸준히 깊게 파야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장**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7월 31일까지 접수

공모기간을 연장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공모마감을 6월 30일에서 한 달 더 연장하여 7월 31일까지 접수키로 하였습니다.

1. 주 제 : ‘코리아 타운’ ‘재외동포 삶의 현장’

- ‘코리아 타운’ : 세계 각지에 형성된 코리아타운(한인타운) 전경 사진
- ‘재외동포 삶의 현장’ : 미국땅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모습

2. 우수작 대우

- 시상(12명) : 대상(1명) 100만 원, 우수상(1명) 50만 원, 입선(10명) 각 30만 원
- 우수작 국내전시 : 시상작 12개 작품과 우수작 70~100개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전시
- 입선작 12편은 연말 재단 달력 제작 사진자료로 활용 예정

3. 응모요강

- 기간 : 2013년 4월 1일~7월 31일까지



- 아날로그 사진 : 원본사진을 스캔하여 (300dpi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수상작은 추후 수상작 원본 필름 제출 필수)
- 디지털 사진 : 2,000×2,800pixel 이상 권장, 파일용량 2Mb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접수 : www.korean.net / www.okf.or.kr 팝업존에서 접수

2013년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이벤트

재외동포재단은 단행본, 정간물, 논문 등의 동포 관련 자료실을 운영하오니 동포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출증 발급 이벤트**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에 방문하셔서 대출증을 발급받으시면, 50, 100, 150, 200, 300번째 발급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 **홈페이지 방문자 이벤트** : 자료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월 최다 방문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로그인을 해야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대출자 이벤트** : 2013년 책을 많이 빌리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13년 7월 1일~2013년 12월 20일
 - 이벤트 선물 : ‘새김소리 수제 도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대상논문을 7월 10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이다. 또한, 선정된 후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에 게재 및 관련 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가 가능한 논문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학위논문의 학문적 완성도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주제의 시의 적절성 등이며, 입상자는 오는 9월 중 통보하고 코리아넷(korean.net)에 공지한다.

응모방법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응모서·지도교수 추천서·학위증명서 ▲응모논문 원본 2부(우편 제출) 및 PDF(이메일 제출)·요약본(선택사항) 등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재외동포 입국 때 ‘사실상 내국인 대우’ 받는다



제도 개선 후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내국인 심사대,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앞에 '재외동포들도 국민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입국 절차가 대폭 간편화 돼 사실상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은 외국인 심사대에서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내국인이 이용하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은 지난 5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단체와 우즈베키스탄의 재외동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들이 출입국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김 의원은 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말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이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이라고 표시된 내국인 입국 심사대 명칭이 ‘대한민국 여권, 재외동포(OVERSEAS KOREAN)’로 변경됐고, 재외동포들이 입국 심사장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심사대가 비어 있어도 외국인 줄에 서서 몇 십 분씩 기다려야 해 입국 심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입국 심사 시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해 재외동포들의 불만이 많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였듯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재외동포들의 입국 수속이 간편해짐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F-4)비자와 방문취업(H-2)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대상이며, 연간 약 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외동포(F-4)비자 입국자는 22만7천836명, 방문취업(H-2)비자 입국자는 24만5천471명이었고, 2013년 1월~5월까지 입국자는 재외동포(F-4)비자의 경우 11만2천19명으로 지난해 대비 122.1% 증가했으며, 방문취업(H-2)비자는 9만8천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3%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홍보실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출입국 관리기록을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할 때 외국인으로 차별받던 서러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지금까지처럼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7월 17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앞에 “재외동포들도 내국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운 뒤 모든 재외동포들에 대해 내국인에 준한 입국 심사를 받도록 시행해 왔다. **장**

박근혜 대통령 訪中, 새로운 20년 협력 다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30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우리 기업 시찰과 주요 유적지 방문, 재중한국인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는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중정상회담의 핵심 기대성과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핑요우(老朋友·오랜친구)'로 칭하며 국민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연 것이나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 주석과 오랫동안

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로 보인다.

실질적 성과도 제법 많이 도출됐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첨부된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든 것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치부할 수 있어 보인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며 "한국이 이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의 해결을 기하고 한중 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국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시안에서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이 지역 우리 국민 대표 15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샹그릴라호텔에서 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전 세계 720만 명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재외공관이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산시성 투자가 확대돼 한국과 산시성 등 중서부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및 내수시장 발전정책에 부응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국민 대표들이 자녀 교육문제와 유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질의하자 차세대 재외동포 한글교육과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명문 프린스턴대에 한인 부총장

개교 267년 만에 첫 아시아인 데이비드 리(이상윤) 교수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프린스턴대학에서 한국인 교수가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부총장에 임명됐다.

프린스턴대학은 6월 11일 차기 총장에 뽑힌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현 부총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리(한국명 이상윤·41)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대학에서 아시아인 부총장에 오른 것은 이 교수가 처음이다.

이 교수가 맡게 될 부총장 직은 대학의 행정과 예산 등을 총괄하는 서열 2위의 자리로 총장 다음인 수석 부총장에 해당한다. 닐 루텐스타인 전 하버드 대학 총장과 에이미 구트맨 펜실베이니아 대학 총장 등이 프린스턴 대학 부총장 출신이다.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 교수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프린스턴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컬럼비아대와 UC버클리 등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낸 뒤 지난 2007년부터 프린스턴대 강단에 섰다.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과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이 교수는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최저임금, 고용보험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교수가 부총장에 오른 것은 아이스그루버 차기 총장의 두터운 신임 때문이다.

아이스그루버 차기 총장은 프린스턴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교수가 부총장직을 수락해줘 기쁘다”면서 “부총장으로 있을 때 이 교수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뛰어난 판단력과 행정력, 동료애 등으로 깊은 감명을 줬다”고 이 교수를 높이 평가했다.

아이스그루버 차기 총장은 “앞으로 이 교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이 교수가 최고의 부총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프린스턴대에 교수로 돌아왔을 때 연구와 교육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아이스그루버 차기 총장과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부총장으로서 프린스턴대에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린스턴대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젊은 총장으로 기대를 모



는 아이스그루버와 함께 프린스턴대 개혁의 청사진을 짜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교수의 부인 크리스티나 리도 프린스턴의 스페인·포르투갈어 및 문화학과에서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다. 부인 역시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딸과 최근에 태어난 아들을 두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는 이 교수가 부총장으로 열심히 일하면 프린스턴대학이나 다른 유명 대학의 총장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 중 아이비리그 총장으로는 다트머스대 총장을 지낸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있다.

267년의 역사를 가진 프린스턴대는 하버드, 예일대와 함께 미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

캐나다 ‘한국의 해’ 포스터에 실린 한인들

연아 마틴 · 이미정 · 강철용 · 정환석 씨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한국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 포스터에는 상원의원 연아 마틴, TV 앵커 이미정, 한인 최초 장군 정환석과 에이즈 백신 분야의 세계적 석학 강철용 교수가 포함됐고 한국전 참전용사 자크 텍스트라자 씨가 실렸다.

캐나다 첫 한인 상원의원 연아 마틴



맨 먼저 나오는 한인은 지난 2009년 한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오른 연아 마틴(48·한국명 김연아). 그는 2008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로부터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됐고, 이

듬해 1월 수도 오타와의 연방의회 의사당에 입성했다.

75세까지 ‘중신’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상원 사무총장(Deputy Government Whip) 자리에도 올랐다. 인권과 사회, 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해 이민 개선, 대학 교육의 기회 부여, 빈곤 퇴치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나 청파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캐나다에 이민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뒤 번바이고교와 포트 무디중학교 등지에서 영어와 불어 교사로 일했다.

특히 그는 2003년 비영리단체 ‘C3(Corean, Canadian, Coactive society)’를 설립했다. 캐나다 전역의 한인 2세와 입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캠프 코리아’를 비롯해 리더십 콘퍼런스, 멘토십 프로그램 등을 여는 단체다.

캐나다 의회가 매년 7월 27일(휴전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도록 법안을 냈고, 지난 6월 4일 상원을 통과했다.

대표 TV 채널 CTV 앵커 이미정



CTV 앵커 이미정(47) 씨도 포스터 한쪽 면을 차지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4살 때 부모와 함께 밴쿠버에 정착한 그는 고교 졸업시 최우수 학업상을 받기도 했다. UBC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토론토 라이어스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UBC에 진학하며 처음엔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글쓰는 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그녀는 대학시절 UBC문학지에 몇 개의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0년 밴쿠버 선의 수습기자로 출발해 밴쿠버 CKO 라디오, CHEK TV, BCTV, VTV(밴쿠버 티비)를 거쳐 현재 CTV의 취재기자 겸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학창 시절 조용한 성품에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던 이 씨는 기자라고 다 외향적인 것은 아니며 자기 일에 얼마나 몰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사람”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살 때 이민 온 이 씨는 “한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한 가지 문화적 배경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에 비해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훨씬 다양한 채널을 접할 수 있어 기자로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초 에이즈 예방 백신 개발 강철용



강철용(72) 웨스턴 온타리오대 교수도 등장한다. 강 교수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지난 61년 덴마크로 유학했다가 66년 캐나다로 건너갔다. 그는 남들이 9시간 공부할 때 15시간씩 연구하는 생활을 거듭한 끝에 캐나다 맥매스터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3년 만에 마쳤다.

강 교수는 대학원에서 최고 수준의 저널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그는 현재 캐나다 학술원 종신 회원이며 한국인 노벨상 수상 후보로도 늘 꼽힌다.

2006년 온타리오대는 강 교수의 논문 발표문에서 “강 박사가 개발한 백신은 유사 바이러스를 통해 방어적 면역반응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원숭이 실험에서 항체 생성과 면역반응이 확인돼 실효성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백신으로 개발될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혔다.

임상실험에서 효능이 확인된 HIV 백신은 개발된 바 없어 강 박사의 백신이 임상실험을 모두 마쳐 인정을 받으면 세계 최초의 에이즈 예방 백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에이즈 백신 개발은 원료가 될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할 수 없어 벽에 부딪혀 왔으나, 강 교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대량의 바이러스를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의 돌파구를 열었다.

강 교수가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을 생각하며 에이즈 백신 개발에 전념한 것은 스스로가 젊은 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처음 건국대 축산대로 진학한 것도, 덴마크로 유학간 것도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였지요.” 그가 61년 덴마크 유학 길에 가지고 간 것은 독한사전·영영사전 한 권씩과 셔츠 두 벌, 바지 한 벌, 그리고 25달러가 전부였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 농장에서 젖소의 젖을 짜는 일도 엄청나게 했다”고 회고했다.

강 교수는 “한 해 1천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바이러스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소수인종 최초 장군 정환석



한인으로는 캐나다 최초로 별(★)을 달았던 오타와의 정환석(55) 씨도 포스터에 나온다.

정 준장은 오타와 한인회 회장을 역임한 고 정종식 박사와 이광순씨의 2남2녀 중 차남으로 11세 때 캐나다로 이민했다. 토론토대학 의대를 졸업했으며 이스트중합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뒤, 1981년 군에 입대해 군의관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91년 걸프전 때는 수석 의무장교로 참전했다.

93년 귀국 후부터 그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매달렸다. 오타와에서 프랑스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2005년에는 로열 로드 대학에서 리더십 과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사관학교에서는 국가 안보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군에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그는 2009년 소수인종 최초로 별을 달고 준장으로 진급했고 지난해 예편했다.

정 준장은 이민정보 잡지인 ‘캐나다 이민그런트’가 공개 후보추천과 심사위원회 심사, 네티즌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2 캐나다 최고 이민자 2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장**



홍콩한인여성회가 주최한 '한식세계화'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식도락의 천국 홍콩, 요즘 대세는 '한식'

아시아의 월드시티, 상업·금융 허브이자 식도락의 천국인 홍콩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곳은 다름 아닌 한식당들이다. 2005년 드라마 대장금의 홍콩상륙 이후 한류열풍이 거세지면서 한식을 찾는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2~3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면 최소 1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또 교통체증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시간보다 10분만 늦어도 식당 앞에서 장사진을 친 현지인들에게 가차 없이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우리 음식을 먹는 게 경쟁이 됐다.

홍콩 최대의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openrice.com)에 등록된 한

식당만 어림잡아 300여 개에 이르고, 이 중 50여 개의 한식당만 우리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 한식당의 주요 고객이 한국 교민이나 한국 여행객들이었던 몇 년 전과 달리 현재 홍콩의 한식당은 현지나 외국인이 90% 차지할 만큼 한국 음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한식의 인기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주홍콩총영사관과 aT센터가 홍콩의 5성급 호텔인 아일랜드 샹그릴라와 엑셀시어 호텔에서 한국 음식 판촉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홍콩의 호텔들은 앞 다퉈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뷔페로 선보이거나, 여름 특선 메뉴로 삼계탕이나 갈비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며 한국 음식을 찾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고 치열한 경쟁



홍콩 하이얏트 리전시 호텔이 레스토랑 메뉴에 한식을 추가해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갈비정식과 한식부페.

을 벌이고 있다.

어디 이뿐이라, 맥도널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매콤한 한국식 햄버거를 내놓고 '한국의 맛'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데 이어, 홍콩섬 최고의 중심지에 있는 대형쇼핑몰 퍼시픽플레이스에 있는 로카(ROKA) 퓨전 일식당을 비롯해 홍콩의 많은 고급 식당과 심지어 유명 골프클럽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고수해 오던 그들만의 전통 요리법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고추장을 소스로 이용한 한국식 바비큐나 비빔밥, 갈비구이, 냉면, 비빔밥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로카의 영국 런던 본점에서 근무하다 홍콩으로 건너온 메인 셰프 패트릭(Patrick)은 "한국 고추장을 이용해 양고기 스테이크를 선보인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이뿐 아니라 일본 사케 칵테일만 주로 선보이다 최근에 소주 칵테일을 선보이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며 "홍콩 젊은 층의 최대 관심사가 '한국 가수'와 연예인, 대중문화 인 만큼 홍콩 외식업계에 미치는 '한국 음식'의 영향도 지대하다"고 강조한 후 "이젠 누가 뭐래도 한국음식이 대세"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한국 음식은 그동안 아시안 음식 가운데 중식이나 일식을 차지하고라도 태국이나 인도, 베트남 음식 등에 비해 선호도와 인식이 낮았던 게 사실이다. 또한, 칩사추이나 홍콩섬의 어두운 뒷골목과 오래된 건물에 조그맣게 자리했던 한식당들이 최근에는 빅토리아 하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초고층 쇼핑몰 아이스퀘어(iSquare)과 홍콩 최대 명품 쇼핑몰인 하버시티(Harbour City)등에 진출하면서 홍콩에 사는 교민과 여행객들의 어깨를 으쓱거리게 해 준다.

칩사추이 아이스퀘어에서 '명가' 한식당을 운영하는 주상인 사장은 "얼마 전 한 교민이 우리 식당에 찾아오셔서 '이런 멋진 곳에 이렇게 좋은 한식당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 하다가 눈물까지 흘



한국식 매콤한 햄버거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맥도날드의 '코리아맥스파이스'.

리던 분이 계셔서 가슴이 뭉클해졌다"면서 "이제는 우리 한식당들도 뒷골목 상권에서 벗어나 홍콩 중심으로 진출하고, 또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키워감과 동시에 높아진 우리나라 국력에 맞춰 최고의 재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로 한식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맛과 건강 면에서 우수한 우리 한식은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세계 음식의 각축장이 된 식도락 천국 홍콩에서 콧대 높은 요리사들도 앞 다퉈 한식을 개발하고, 식당의 메인 메뉴로 내거는 등 '대세는 한식'임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는 한류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 aT센터와 코트라, 관광공사 등 다양한 협력업체와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교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장**

권윤희 위클리홍콩 발행인 / 재외동포의창 홍콩 통신원



세계적인 음식 평론가로 식신(食神)으로 불리는 추이람 씨가 홍콩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식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해 한식을 맛보고 있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노름 / 놀음

공문서나 알리는 글을 등을 보면 ‘있다’라는 말을 명사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오류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있슴’ 또는 ‘있썸’으로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된 표기다.

우리말에서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용언의 어간에 ‘~ㅁ’ 이나 ‘~음’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다, 꾸다, 추다’와 같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ㅁ’을 붙여서 ‘그림, 꿈, 춤’과 같이 만들고, ‘얼다, 웃다, 죽다’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음’을 붙여서 각각 ‘얼음, 웃음, 죽음’이 된다. 그러므로 ‘있다’의 경우에는 ‘있음’이 된다. 그러나 발음은 물론 이썸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박의 일종인 ‘노름’의 경우는 어떨까? 맞춤법에는 ‘~음’과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것이라고 해도 어간의 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노름’의 경우에도 원래는 ‘놀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지만 원래의 뜻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노름’이라고 표기하고 그대로 발음한다.

터울

“아이들 셋이 참 많이 닳았네. 몇 살이야?”

“제일 큰 애가 여덟 살이고 그 밑으로 모두 두 살 터울이에요.”

대개 아이들의 나이를 말할 때 ‘두 살 터울’이라든가 ‘세 살 터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여기서 ‘터울’이라는 말은 한 어머니가 낳은 형제 간의 나이 차를 뜻한다.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들을 하나 또는 둘 정도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형제가 여섯, 일곱씩 되는 집들도 많았기 때문에 형제 간의 나이 차가 어떻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다.

대개 형제 간의 나이가 별로 안 날 때는 ‘터울이 잦다’고 말하고, 나이 차이가 일정할 때는 ‘터울이 고르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터울’이라는 말은 반드시 형제 간의 나이 차이를 뜻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10년에 한 번씩 했으니 그것도 10년 터울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원래 ‘터울’이라는 말은 ‘한 터에서의 울타리’라는 것으로 경계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형과 동생이 두 살 터울이라는 말은 형이 태어나고 두 살을 경계로 동생이 태어났다는 뜻이 된다.

청출어람(靑出於藍)

흔히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의 실력과 평판을 말할 때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한문 속어를 쓴다. 이것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순자(荀子)의 권학편(勸學篇) 첫머리에 나온다.

그 부분을 옮겨 보면, ‘배움은 그쳐서서 안 된다. 푸름은 이것을 쪽에서 취했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고 쓰여 있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과 향상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야 하고,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은 더욱 깊어지고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푸름과 얼음은 학문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듭 쌓음으로써 그 성질이 더욱 깊어지고 순화되어 가는 것이다.

노후설계

전찬영(캐나다) 2012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가작

내 나이 마흔 다섯, 남편 나이 마흔 아홉
우리 부부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하는 말,
“우리 늙으면...”

밴쿠버에 집 한 칸 있으니 보금자리 마련되고
요즘은 구십까지도 산다는데 생활비는 넉넉할까.
열심히 직장 다니며 연금 붓고 있잖아.
에게... 연금?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면,
두 식구 소박하게 살며, 알뜰하게 쓰면 되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는 딸만 둘이니 우리 집은 외갓집이 될 텐데
우린 어떤 외갓집이 될까?
당신은 목수니까
마당에 소꿉놀이 나무 집도 만들고
미끄럼틀도 만들어 봐.
마당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같까
그래 그러자.
손주들이 늘 오고 싶어 엄마를 조르는 외가를 만들자
마당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네를 매자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며 그리운 이야기를 하자
그래 그러자
아아. 손주들 첫 아기 침대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 그래. 밑에 기저귀 서랍도 만들어 넣어.



어떤 사람들은 출렁거리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치매가 왔다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적당한 시기에 일을 조금씩 줄이면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지.
세상 가장 큰 기쁨은 남을 위해 내가 행복을 느낄 때가 아닐까?
우리도 정말 그런 걸 느껴볼 수 있을까.
자동이체로 찢끔찢끔 가난한 나라에 돈 보내고
‘이달 치 돈 나갔네’ 하는 것 말고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 볼 수 있을까.

너무 쪼글거리는 할머니가 되긴 싫은데,
정말 곱게 늙고 싶은데,
여긴 보톡스도 없고, 성형 수술도 없는데...
그래, 좀 더 부지런 떨며 마사지를 열심히 해야겠다.
소박한 집에서
손주들 오면 둘러 앉아 만두 빚어 먹이고
일주일에 나흘쯤 열심히 봉사하고,
마사지도 하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

당신도 할아버지 되면 내가 마사지 해 줄까?





문경새재 트레킹 길은 맑은 계곡,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은 소나무와 전나무에 싸여 세상사의 시름을 잊을 만큼 멋진 산책로다.

하늘 · 산 · 물... 세상 시름을 잊어라 문경

경상북도 문경(聞慶)은 예로부터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을 넘나들던 유서 깊은 고장이자 백두대간이 병풍같이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문경새재를 비롯해 석탄박물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갈색 보양온천인 '칼슘중탄산 온천' 과 '알칼리온천' 을 동시에 보유한 문경온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매력적인 고장이다.

문경새재는 죽령, 추풍령 등과 함께 한양과 영남 지방을 잇는 중요 길목이었다. 옛사람 발자취가 남아 있는 문경새재의 참 맛은 고갯길 트레킹에 있다. 트레킹은 임진왜란을 겪고도 100년이 지난 후인 숙종 34년(1708년)에 세워진 제1관문인 주흘관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조령관이 있는 정상까지는 6km, 왕복 3~4시간쯤 걸린다.

이곳에서 제2관문까지 펼쳐지는 길은 맑은 계곡,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은 소나무와 전나무에 싸여 세상사의 시름을 잊을 만큼

멋진 산책로다. 흙길을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계곡을 따라 걸으면서 고려 · 조선시대 때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해주었던 조령원터와 주막, 신구 관찰사의 임무 교대를 위해 세워진 교귀정, 한글 고어로 쓰인 '산 불도심비' 등을 만날 수 있다.

주흘관에서 2.8km 정도 걷다 보면 기암절벽이 굽어보며 우람하게 서 있는 제2관문인 조곡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기암괴석과 낙락장송, 그리고 맑은 계류가 한데 어우러진 곳에 자리한 조곡관은 새재의 세 관문 중에서도 풍광이 으뜸이다. 천험의 요새인 조곡관을 지나 600m쯤 가면 촌로의 애절한 민요 가락인 '문경새재 민요비' 가 보인다.

문경의 또 다른 옛길은 고모산성과 토끼벼루길이다. 새재 옛길에서 3번 국도를 타고 점촌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진남교반(鎭

南橋畔)이 반긴다. 문경새재를 적시고 흘러온 조령천이 영강에 몸을 섞는 이 일대는 높다란 바위 벼랑과 물줄기가 어우러진 풍광이 빼어나다.

국도변의 진남휴게소에서 삼국시대에 축조된 고모산성으로 오르다 보면 오른쪽 샛길로 영남대로 옛길이 고개를 내민다. 100m쯤 들어가면 점촌에서 문경으로 들어가는 '토끼벼루'라는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길은 고려 왕건이 이 고장 출신 견훤과의 싸움에 패해 쫓기다 길을 잃었을 때 토끼가 이곳 벼랑(벼루는 벼랑의 사투리)에서 나타나 길을 알려줬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토끼벼루에서 되돌아 나와 산길을 조금 오르면 둘레 1.3km의 고모산성이 버티고 있다. 고모산성은 임진왜란 때엔 영남대로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던 왜군이 당시 텅 빈 고모산성을 보고 겁을 먹어서 진군을 멈추었던 철옹성이었다.

문경 가은에서 봉암사를 지나 대야산으로 가다 보면 선유동이라는 이름을 단 큰 이정표를 만난다. 선유동은 산수가 빼어나 예부터 '문경의 소금강'이라 불려왔다. 이름 그대로 옛날에는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할 정도로 붉은 소나무숲과 기암괴석, 큰 바위들로 절경을 이룬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문경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다양한 레저를 접할 수 있다. 강바람을 맞으며 시속 30km까지 내달릴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산악 오토바이, 클레이사격, 카트, 무동력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레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다.

문경의 최고 인기 레포츠는 단연 레일바이크다. 바퀴가 4개나 되니 위험하지도 않고 따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지도 않다. 성인 두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탈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제격이다.

문경시 가은읍의 석탄박물관 주변 옛 은성광업소 부지에 세워진 가은오픈세트장은 가족과 함께 역사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찾는 것은 실감 나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나들이 코스가 된다.

문경석탄박물관은 1994년 폐광된 은성광업소가 있던 곳에 지어진 산 교육장으로, 이곳에서는 장롱에 오래 보관해둔 빛바랜 흑백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전시물을 통해 문경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다.

문경읍에는 2개의 온천이 있다. 문경종합온천에서는 지하 900m에서 분출한 황토색의 칼슘·중탄산 온천수와 지하 750m에서 솟는 푸른색의 알칼리성 온천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 통풍, 신장병,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참**



- 1 문경시 가은읍의 석탄박물관 주변 옛 은성광업소 부지에 세워진 가은오픈세트장은 실제 현존하는 고구려 성의 답사와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재현한 세트장이다.
- 2 문경석탄박물관은 1994년 폐광된 은성광업소가 있던 곳에 지어진 산 교육장이다. 한때 영화를 누렸던 광부들의 생활상과 탄광에서 사용된 장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석탄 외에도 지구의 형성, 여러 가지 광물자원과 화석 등에 대해서 두루두루 배울 수 있다.
- 3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제격인 레일바이크는 진남역~구랑리역 구간과 진남역~불정역 구간 등 2개 코스는, 모두 왕복 4km로 이뤄져 있다.
- 4 3만9000여㎡ 규모의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은 습생초지원, 생태습지, 생태연못, 야생화원, 건생초지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 5 문경은 예로부터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을 떠나던 유서 깊은 고장이자 백두대간이 병풍같이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코리안넷 다양한 이벤트 참여하세요

코리안넷은 720만 재외동포와 내국인의 소통을 위한 전문 포털입니다. 코리안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과 코리안넷 카카오토티가 개설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안넷은 매년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마련되어 있으니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우·생·이(우리들의 생생한 이야기)



생생한 해외경험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세계 속 한류, 세계 축제, 맛집과 쇼핑, 해외 생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생생한 해외경험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응모해주세요.

1. 주 제

- 세계 속 한류 : 해외에서 만난 대한민국, 한국기업, 한국영화, 한국드라마, K-POP, 한국 인물이야기
- 해외 생활 : 출국에서 도착까지의 이민 이야기, 현지 정착 에피소드, 우리집 자랑 해외이민, 유학생생활 속 이야기
- 맛집과 쇼핑 : 쇼핑물, 각 나라의 재래시장, 특색 있는 맛집 이야기
- 세계 축제 : 세계 각지의 축제, 각국의 행사, 지역 이벤트 이야기

2. 당첨 & 주의 사항

- 사진과 글을 풍성하게 올리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모든 글과 사진은 꼭 게시판에 직접 기재해 주세요.
- 다른 이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제목은 지역명과 분류명으로 기재해 주세요.
(ex. <미국> 맛집과 쇼핑)

3. 이벤트 기간과 당첨, 경품

- 응모기간 : 2013년 6월 20일~7월 21일
- 당첨발표 : 2013년 7월 28일
- 경품 : 애플 아이패드 미니(1명),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원 (15명)

■ 코리안넷 출석체크



매일 매일 출석하신 도장 수 만큼 선물도 풍성해집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매일 출석 체크한 회원님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7월 1일~31일
- 당첨자 발표 : 2013년 8월 7일(수)
- 당첨 내역 : 전체출석 3명(애플 아이패드 미니), 20일 출석 100명(온라인문화상품권 1만원), 10일 출석 130명(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